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
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농림정책과

과장 김신재, 사무관 김동현
(044-200-2231, 2232)

AI 총력 대응으로 청정한 동계올림픽과 안전한 설명절 준비

- 이 총리,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문, 방역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-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3일(화) 14시, AI 중앙사고수습본부(정부 세종청사 5동, 본부장 : 농림축산식품부 장관)를 방문하여 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.

* 참석 :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,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

-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, 고창 오리농장 AI 확진 시 부터 중앙 사고수습본부*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상황 점검회의(영상회의)를 매일 개최하여 전국단위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

* 농식품부·행안부·환경부·국방부·질병관리본부·식약처 등 범정부 대응팀으로 구성

- 현재까지 AI는 고창·영암·포천·천안 등 12개 시·군에서 총 18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고, 정부는 주변농장으로 확산되지 않고 발생농장 단위에서 종료되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차단방역 조치*를 했습니다.

* △예방적 살처분 구역 확대(500m → 3km) 적용, △H5 항원검출 즉시 이동 중지명령 발령(발생농장 계열사 포함), △ 발생지역 관내 전체 가금 7일간 이동·출입 통제 및 정밀검사 등

□ 이낙연 총리는 먼저,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 덕분에 AI 발생빈도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*면서, 89일째 휴일없이 24시간 교대근무하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을 격려했습니다.

* 전년동기 대비 발생건수 5.3%(18/342건)/ 살처분 마리수 13.1%(4,337/33,140천마리) 수준

-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
- 아울러, 현재와 같은 선제적 방역조치가 향후 AI 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대한 지속적 보완을 당부했습니다.

□ 정부는 올림픽 개최지 강원지역에 대한 특별방역조치*를 지속하는 한편 설명절 기간 동안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

* △ AI 발생지역 가금 반입 금지, △ 경기장 3km내 소규모 가금 수매·도태, △특별방역단 구성·운영(1.18~), △소독시설 확대 운영(10 → 72개소) 등